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의 내용 및 특징

김 문 식*

-
- | | |
|---------------------|-------------|
| 1. 머리말 | 2) 왕실의 정치 |
| 2. '왕실자료 정리사업' 의 개요 | 3) 왕실의 학문 |
| 1) 사업내용 | 4) 왕실의 문예 |
| 2) 참여연구자 | 5) 왕실의 역사서술 |
| 3. 왕실자료의 내역 | 5. 왕실자료의 특징 |
| 4. 왕실자료의 내용 | 6. 맺음말 |
| 1) 왕실의 연원 | |
-

1. 머리말

2002년 3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한국고전자료를 체계적으로 번역하고 수집·정리하기 위해 기초학문 육성지원사업 가운데 '국학고전연구'란 새로운 사업 분야를 마련하였다. 이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는 규장각에 소속된 학예직 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사업 추진팀을 구성하고, '규장각 소장 국학자료 정리사업'이란 제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하였다.¹⁾

규장각에서 최초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총 81명(연구책임자 1명, 공동연구원 5명, 연구전임인력 20명, 연구원 55명)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대형과제였으며, 이는 7개의 사업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7개 사업팀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 왕실자료 정리사업
- 2) 의궤류자료 정리사업
- 3) 문집자료 정리사업
- 4) 특수자료 정리사업(고문서, 고지도)
- 5) 근대정부기록류 정리사업

* 필자 : 단국대 사학과 교수

1) 본 사업은 2002년 5월 9일 18:00에 온라인 접수를 마감했고, 5월 17일에 서류 제출을 마감했다.

- 6) 중국본자료 정리사업
- 7) 고대사자료 정리사업

그러나 학술진흥재단의 심사를 거치는 동안 7개 사업 가운데 3개 사업만 심사를 통과했고 연구비도 크게 삭감되었다.²⁾ 따라서 규장각에서는 연구인원을 총 52명(연구책임자 1명, 공동연구원 3명, 연구전임인력 15명, 연구원 33명)으로 축소하고, 심사를 통과한 3개 사업을 중심으로 팀을 재구성하여 자료정리 사업에 착수했다. 3개 사업팀으로 구성된 ‘규장각 소장 국학자료 정리사업’은 2002년 8월 1일에 시작하여 2005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진행되었다.

본고는 ‘규장각 소장 국학자료 정리사업’ 가운데 ‘왕실자료 정리사업’의 개요와 규장각에 소장된 왕실자료의 전모를 소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왕실자료 정리사업’의 진행과정을 소개하고, 왕실자료의 내역, 내용, 특징을 차례로 정리하였으며, 맺음말에서 본 사업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조선시대의 왕실자료에 관심을 가진 관련 연구자들의 조언과 질정을 기대한다.

2. ‘왕실자료 정리사업’의 개요

1) 사업 내용

‘왕실자료 정리사업’(이하 ‘본 정리사업’으로 약칭함)이란 ‘규장각 소장 국학자료 정리사업’을 구성하는 3개 사업 중 하나로서, 규장각에 소장된 자료 가운데 왕실자료를 선별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규장각은 1776년 정조가 창덕궁 후원에 처음 설치한 이후 1910년 大韓帝國이 멸망할 때까지 왕실 도서관으로 기능했고, 한말에는 궁궐 안에 있던 각급 기관과 지방의 4대 史庫에 보관되었던 서적들이 모두 합쳐졌다. 따라서 왕실자료는 규장각이 소장한 자료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규장각 소장 국학자료 정리사업’은 기초조사 및 해제 ⇒ 심화 해제 및 해설 ⇒ 정리 및 간행의 순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기본 전략을 세웠고, 구체적으로는 제일 처음에 목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목록화된 자료의 개별 해제를 작성하며, 마지막에 분류별 해설을 작성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본 정리사업도 이 방식을 따랐는데 연차별 사업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최종 확정된 예산은 1차연도 7억 2,950만 원, 2차연도 7억 1,950만 원, 3차연도 7억 2,500만 원, 총 21억 7,400만 원이었다.

① 1차 연도

1차 연도에는 왕실자료의 목록을 정리하는 사업에 집중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작업이 있었다.

하나는 왕실자료의 범위 및 분류기준을 정한 다음 규장각 도서 중에서 왕실자료를 선별하여 재분류하고, 도서 원본을 열람하여 상세한 서지사항을 작성하는 작업이었다. 목록은 해당 자료의 서지사항과 내용적 특성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작성하되 1종당 200자 원고지 2매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총 2,200종 4,400매의 원고를 작성했다. 왕실자료의 분류는 기왕의 四部 체제 대신에 왕실자료의 특성을 보여주는 분류체계를 채택했는데, 왕실자료를 왕실의 연원, 왕실의 정치, 왕실의 학문, 왕실의 문예, 왕실의 역사서술 등 5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세분했다. 이 작업의 결과로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목록』(875면)이 작성되었다.

다른 하나는 조선시대에 작성된 규장각 도서목록을 조사하여 해당 도서가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작업이었다. 이를 위해 조선시대의 도서목록 5종을 선정하고 여기에 수록된 6,475종의 도서명을 정리한 표를 작성한 다음, 현재 규장각에 그 책이 소장되어 있는지를 일일이 표시했다. 이 작업에 활용된 5종의 도서목록과 각 목록에 수록된 도서의 종수는 다음과 같다.

『奉謨堂奉安御書總目』	96종
『奎章總目』	700종
『西庫藏書錄』	1,800종
『書香閣奉安總目』	179종
『奎章閣書目』	3,700종

이상 5종의 도서목록을 조사한 결과 현재 규장각에는 6,475종 가운데 3,706종의 자료가 보존되어 있어 약 42%의 자료가 망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망실된 자료는 장서각이나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망실된 경우도 있으리라 추정된다.³⁾ 이 작업의 결과로 『조선시대 규장각 자료의 현황조사표』(147면)가 작성되었다.

② 2차 연도

2차 연도에는 왕실자료의 개별 해제를 작성하는데 집중했다. 해제를 작성할 때는 1차 연도에 작성한 목록과 내용적 특성을 참조하고, 도서 원본을 다시 열람하면서 원고를 작성했다. 해제를 작성할 때에는 판본은 다르지만 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하나로 모았고, 해제에는

3) 정재훈,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의 정리 현황」 『奎章閣』 26, 2003, 15면.

각 자료의 기초적 서지사항, 편저자, 간행연도, 도서의 체제와 내용, 왕실자료로서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원고의 표준화를 위해 사전에 ‘왕실자료 해제원고 작성원칙’을 정리하여 두었으며, 원고량은 도서 1종당 200자 원고지 5매를 기준으로 했다.

2차 연도의 작업 결과 1,480종 7,400매의 해제 원고가 작성되었고, 이는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해제(1)』,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해제(2)』(총 1,141면)로 정리되었다.

③ 3차 연도

3차 연도에는 2차 연도에 해제를 작성하지 못한 자료의 개별 해제를 마무리하고, 분류별 해설을 작성하는데 집중했다. 개별 해제의 대상이 된 자료는 1차 연도에 목록으로 정리된 2,200종 가운데 2차 연도에 해제가 작성된 1,480종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이다. 그리고 ‘분류별 해설’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분류된 왕실자료의 5개 범주와 그 아래의 24개 세목에 해당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설하는 글을 말한다. 또한 이번 사업에서는 각 연구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년 동안 왕실자료를 조사하면서 그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임의의 글을 작성하게 했는데, 이는 ‘주제별 해설’에 해당한다. 분류별 해설과 주제별 해설의 원고는 논문식으로 서술하되 각 주제당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를 기준으로 했다.

④ 사업 결과물

이상 3년간의 작업을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해제해설집』 4책을 간행하였다. 이중 제1책에서 3책까지는 왕실자료의 총설, 5개 범주 및 24개 세목에 대한 분류별 해설, 왕실자료의 개별 목록과 해제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제4책에는 연구자가 임의로 주제를 선정하여 작성한 주제별 해설 33종과 1차 연도에 작성한 『조선시대 규장각 자료의 현황조사표』를 ‘규장각목록소재도서 현재소재여부조사표’란 제목으로 수록하였다. 각 책당 면수는 제1책 456면, 제2책 664면, 제3책 504책, 제4책 548면 등 총 2,172면이다.

2) 참여 연구자

본 정리사업에는 연구책임자 1명, 공동연구원 1명, 책임연구원 5명, 연구원 16명, 보조연구원 2명, 교열 1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책임연구원 5명을 팀장으로 하는 5개 팀을 구성하고, 각 팀에 연구원 2~3명을 추가 배치하여 팀제로 운영했다. 본 정리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의 명단과 활동기간은 다음과 같다.

연구책임자	정옥자(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2002. 8. 1.~2005. 7. 31.
공동연구원	김문식(서울대 규장각 학예연구사)	2002. 8. 1.~2005. 7. 31.

책임연구원 ⁴⁾	김남기(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2002. 8. 1. ~ 2005. 7. 31.
	김영심(서울대 국사학과, 문학박사)	2002. 8. 1. ~ 2005. 2. 28.
	나종면(성균관대 한문학과, 문학박사)	2002. 8. 1. ~ 2005. 7. 31.
	박봉주(서울대 동양사학과, 문학박사)	2002. 8. 1. ~ 2005. 7. 31.
	정재훈(서울대 국사학과, 문학박사)	2002. 8. 1. ~ 2005. 7. 31.
연구원 ⁵⁾	김백철(서울대 국사학과, 박사과정)	2002. 8. 1. ~ 2003. 2. 28. 2005. 3. 1. ~ 2005. 7. 31.
	김태훈(서울대 국사학과, 박사과정)	2003. 8. 1. ~ 2005. 7. 31.
	민회수(서울대 국사학과, 박사과정)	2005. 3. 1. ~ 2005. 7. 31.
	박해남(성균관대 한문학과, 박사과정)	2002. 8. 1. ~ 2004. 7. 31.
	송진(서울대 동양사학과, 박사과정)	2003. 3. 1. ~ 2005. 7. 31.
	안순태(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2004. 3. 1. ~ 2005. 7. 31.
	우경섭(서울대 국사학과, 박사과정)	2002. 8. 1. ~ 2005. 7. 31.
	윤정(서울대 국사학과, 박사과정)	2002. 8. 1. ~ 2005. 7. 31.
	이은주(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2002. 8. 1. ~ 2004. 2. 28.
	이현진(서울대 국사학과, 박사과정)	2002. 8. 1. ~ 2005. 7. 31.
	장유승(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2005. 3. 1. ~ 2005. 7. 31.
	최재영(서울대 동양사학과, 박사과정)	2002. 8. 1. ~ 2003. 2. 28.
	한재표(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2004. 8. 1. ~ 2005. 7. 31.
	권자영(서울대 국사학과, 석사과정)	2002. 8. 1. ~ 2005. 7. 31.
	김대호(서울대 국사학과, 석사과정)	2002. 8. 1. ~ 2003. 7. 31.
	백승호(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2005. 3. 1. ~ 2005. 7. 31.
보조연구원	신훈민(서울대 국사학과 학사과정)	
	최용묵(서울대 국사학과 학사과정)	
교열	송기중(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2003. 8. 1. ~ 2005. 7. 31.

3. 왕실자료의 내역

왕실자료는 규장각에 소장된 자료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숙종이 창설한 규장각은 御製, 御筆, 璿源譜와 같은 국왕 및 왕실 관련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였고,

-
- 4) 본 정리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박사학위 후 작성한 논문의 편수와 교육 경력에 따라 책임연구원과 선임연구원으로 구분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모두 책임연구원이 되었다. 특히 본 정리사업에서는 정재훈 박사와 김남기 박사가 자료의 분류, 원고 작성, 원고 수합, 원고 교열, 중간심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밝혀둔다.
- 5) 연구원은 석사과정(재학, 수료), 박사과정(재학, 수료) 등으로 구분하였다. 본 정리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원 중에는 소속이 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으로 바뀐 경우도 있었다.

정조가 이를 정치기구로 개편한 이후에도 영조와 정조의 어제를 정리하는 기능을 위주로 했으며, 한말에는 4대 사고의 璿源閣에 보관되었던 왕실 관련 서적들이 규장각으로 일괄 편입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왕실자료가 규장각의 핵심 자료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규장각을 비롯한 각급 기관에 소장된 고도서는 經史子集의 四部 분류법에 따라 정리 되어 왔고, 왕실자료라는 범주를 설정하여 정리해 본 경험은 全無하다는 것이 문제였다.

필자는 기왕에 발표한 논문에서 왕실자료의 범위를 다음의 네 가지 범주로 제시했다.⁶⁾

- 첫째,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작성한 자료
- 둘째,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사용한 자료
- 셋째, 국왕 및 왕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자료
- 넷째, 왕실의 서고에 보관된 자료

이상에서 앞의 세 가지는 분명히 왕실자료이므로, 이를 합하여 ‘왕실자료란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직접 작성 혹은 사용했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네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가 있다. 가령 『조선 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와 같은 연대기 자료나 宮庄土 문서, 內藏院 문서와 같이 왕실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왕실자료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異見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정리사업에서는 국왕 및 왕실과 관련되는 일체의 자료를 모두 왕실자료에 포함하여 그 범위를 최대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왕실자료를 내용에 따라 왕실의 연원, 왕실의 정치, 왕실의 학문, 왕실의 예술, 왕실의 역사서술, 왕실의 재정 등 6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⁷⁾

이를 보면 왕실자료에 해당하는 도서는 총 3,484종 30,356책에 이르는데, 이는 규장각 소장 도서의 17.3%에 해당한다.⁸⁾ 즉 규장각에 소장된 5책 중에서 1책 정도는 조선시대의 왕실과 관련이 있는 자료인 셈이다. 또한 왕실자료 중에서는 역사서술에 관한 것이 40.7%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朝鮮王朝實錄』 『日省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과 같은 연대기 자료로서 모두 國寶로 지정되어 있다.⁹⁾

그런데 본 정리사업에서는 <표 1>에 제시한 자료를 모두 대상 자료로 하지는 못했다. 먼

6) 김문식, 「조선시대 왕실자료의 현황과 활용 방안」 『국학연구』 2, 한국국학진흥원, 2003, 24-25면.

7) 본고에서 제시된 왕실자료의 종수는 동일한 내용의 책이면 판본을 구별하지 않고 1종으로 계산했다.

8) 현재 규장각에는 奎本 고도서 148,819책, 古本 고도서 19,634책, 문고본 고도서 6,382책을 합하여 총 175,915책의 고도서가 소장되어 있다.

9) 『朝鮮王朝實錄』 1,229책은 국보 제151호, 『日省錄』 2,329책은 국보 제153호, 『承政院日記』 3,243책은 국보 제303호, 『備邊司謄錄』 273책은 국보 제152호로 지정되어 있다.

〈표 1〉 규장각에 소장된 왕실자료 내역

장 제목	책수(종수)	절 제목	책수(종수)	백분율(%)
왕실의 연원	4,309(523)	왕실의 족보 왕실의 전기 왕실의 유적	3,574(327) 419(78) 316(118)	14.2(15.0)
왕실의 정치	5,776(1,058)	군왕의 명령 신민의 진언 군왕의 교육 왕실의 의식 정책(국방) 정책(문자 교화) 정책(인재선발) 정책(재판) 정책(궁내부)	1,314(114) 326(34) 99(30) 3,221(753) ¹⁰⁾ 107(8) 53(9) 182(10) 53(5) 421(95)	19.0(30.3)
왕실의 학문	1,689(75)	왕실의 도서목록 국왕 명편 경서 유교사상 불교사상	53(30) 1,217(24) 387(16) 32(5)	5.6(2.2)
왕실의 문예	2,769(181)	국왕의 시문 군신의 창화 왕실의 서화 왕실의 서간 국왕 명편 시문 왕실 선양 시가 기타	1,230(73) 186(33) 46(29) 4(3) 1,202(23) 79(11) 22(9)	9.1(5.2)
왕실의 역사서술	12,360(516)	정사의 편찬 연대기의 편찬 잡사의 편찬 사서의 보관	2,299(40) 7,892(92) 1,302(160) 867(224)	40.7(14.8)
왕실의 재정	3,453(1,131)	왕실의 토지 왕실의 토지수입 왕실의 재정	632(612) 1,639(367) 1,182(152)	11.4(32.5)
계		30,356(3,484)		100(100)

10) 왕실의 의식에서 규장각에 소장된 의례를 546종 2,700책으로 계산했다. 이는 한영우, 「조선시대 儀軌 편찬과 現存 儀軌 조사연구」 『규장각 소장 儀軌 종합목록』, 2002, 20면의 통계를 따른 것인데, 정확한 책수를 제시하지 못해 아쉽다.

저 2,700책에 이르는 儀軌가 제외되었는데, 이는 ‘규장각 소장 국학자료 정리사업’ 중의 硯履자료만을 다루는 별도의 사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왕실의 재정에 관한 모든 자료가 제외되었는데, 이들은 사회경제사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데다가 특히 內藏院 문서는 ‘근대정부기록류’에서 별도로 다루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왕의 통치 행위 가운데 재판, 宮內府와 관련된 자료가 제외되었고, 역사서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대기와 史書의 보관에 관한 자료가 제외되었다. 후자를 제외한 것은 최근 규장각에서 『조선왕조실록』과 형지안류 자료에 대한 연구가 별도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본 정리사업에서는 이상의 자료를 제외한 총 1,363종 14,870책이 대상 자료가 되었다. 앞서 사업내용에서 제시한 대상 자료는 총 2,200종이었는데 이것이 1,363종으로 줄어

〈표 2〉 ‘왕실자료 정리사업’의 대상 자료

장 제목	책수(종수)	절 제목	책수(종수)
왕실의 연원	4,309(523)	왕실의 족보	3,574(327)
		왕실의 전기	419(78)
		왕실의 유적	316(118)
왕실의 정치	2,502(384)	군왕의 명령	1,314(114)
		신민의 진언	326(34)
		군왕의 교육	99(30)
		왕실의 의식	421(179)
		정책(국방)	107(8)
		정책(문자 교화)	53(9)
		정책(인재선발)	182(10)
왕실의 학문	1,689(75)	왕실의 도서목록	53(30)
		국왕 명편 경서	1,217(24)
		유교사상	387(16)
		불교사상	32(5)
왕실의 문예	2,769(181)	국왕의 시문	1,230(73)
		군신의 창화	186(33)
		왕실의 서화	46(29)
		왕실의 서간	4(3)
		국왕 명편 시문	1,202(23)
		왕실 선양 시가	79(11)
		기타	22(9)
왕실의 역사서술	3,601(200)	정사의 편찬	2,299(40)
		잡사의 편찬	1,302(160)
계			14,870(1,363)

든 이유는, 후자의 경우 판본은 달라도 내용이 같으면 1종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단 개별 해제에서는 판본이 다르면 번호를 구분하여 따로 해제함으로써 판본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의 <표 2>는 본 정리사업의 대상 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4. 왕실자료의 내용

본 정리사업은 왕실자료를 왕실의 연원, 왕실의 정치, 왕실의 학문, 왕실의 문예, 왕실의 역사서술 등 5개 범주로 구분하여 정리했다. 이하에서는 각 범주에 해당하는 왕실자료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1) 왕실의 연원

국왕과 왕비, 그들의 직계 尊屬과 卑屬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며 만든 자료를 말한다. 이는 다시 왕실의 족보, 왕실의 전기, 왕실의 유적으로 구분된다.

① 왕실의 족보

‘왕실의 족보’는 국왕의 친인척에 관한 인적사항을 조사한 기록으로, 국왕의 親戚은 親孫과 外孫을 모두 포함하지만, 국왕의 姻戚은 왕비의 가문인 外戚만 대상으로 했다. 왕실의 족보는 흔히 ‘璿源譜’라 하는데, 선원보는 宗簿寺에서 매 3년마다 수정 작성하고 副本을 만들어 4대 史庫에 보관했다. 현재 규장각에 4천여 책의 선원보가 있다.

처음에 선원보는 국왕의 직계를 기록한 『璿源錄』, 국왕의 아들을 기록한 『宗親錄』, 국왕의 딸을 기록한 『類附錄』으로 구분되어 작성되었다. 그러나 숙종 이후에는 이를 모두 종합한 『璿源系譜記略』이 만들어져 왕실의 족보를 대표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국왕의 內孫과 外孫이 각각 6대까지 기록되어 있다. 『敦寧譜牒』은 왕비의 가문을 기록한 족보인데, 敦寧府에서 매 3년마다 수정 작성하였으며 왕비의 친정 9대까지를 기록했다. 숙종 이후로는 왕비의 직계를 정리한 『王妃世譜』가 별도로 작성되기도 했다.

② 왕실의 전기

‘왕실의 전기’는 왕실 가족의 일생에 관한 기록으로,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그 이전의 왕실 인물과 중국 제왕에 관한 기록도 있다. 조선은 개국과 함께 고조선의 역사를 재인식하고 신라의 삼국통일을 강조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東明王, 興武王(김유신), 駕洛國王의 전기와

사적을 정리한 자료가 있다. 또한 국왕과 왕비가 죽으면 각종 글을 지어 그 덕행을 기렸는데, 여기에는 誌文, 行狀, 神道碑銘, 陵誌文, 遷陵誌文, 陰碑記 등이 있다.

규장각에는 이들 자료가 개별적으로 남아있거나 ‘○誌狀’, ‘○行狀’이란 제목으로 특정 인물에 관한 기록을 편집한 경우가 있으며, 숙종 이후에는 이들을 종합한 『列聖誌狀通紀』가 편찬되었다. 그리고 국왕과 왕비의 尊崇, 追崇, 冊禮와 관련하여 해당 인물의 행적을 기록하거나, 역대 국왕의 행적을 축약한 역사서, 왕실의 계통을 도표와 문자로 기록한 系譜類 자료가 있다.

③ 왕실의 유적

‘왕실의 유적’은 국왕 및 왕실 가족의 출생, 성장, 생활, 죽음에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왕실 가족의 출생과 관련하여 胎室의 조성, 胎의 봉안, 태실의 加封, 石物의 개수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 태조에서 영조까지 태봉 관련 자료를 편집한 『胎峯騰錄』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장서각에 소장된 胎封圖 3점이 공개되었는데, 『태봉등록』과 함께 연구되어야 할 자료이다.¹¹⁾

다음으로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궁궐 건물에 관한 宮闕志와 殿閣의 上樑文, 記文, 왕실 가족이 탄생, 방문했거나 거처했던 건물에 관한 碑文, 그림, 記文이 있으며, 역대 왕조의 忠臣·名臣을 추승하기 위해 건립한 사당과 비석에 관한 자료가 있다.

기타 陵·園·墓의 조성, 수리, 관리에 관한 山陵誌와 山圖, 왕실 가족 및 고위 관리의 碑銘을 탁본한 자료가 있다.

2) 왕실의 정치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참여하여 수행한 각종 정치적 활동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이는 다시 국왕의 명령, 신민의 진언, 군왕의 교육, 왕실의 의식, 정책 등으로 구분되며, 정책에 있어서는 국방, 문자 교화, 인재선발에 대해 검토했다.

① 국왕의 명령

‘국왕의 명령’은 왕조국가 정치의 출발점이 되는 국왕의 명령을 기록한 것으로 訓書, 訓辭, 教旨, 教書, 功臣錄券, 功臣騰錄, 傳教, 受教, 綸音, 綸辭, 諭書 등이 있다.

訓書와 訓辭는 국왕이 후계자에게 교훈과 勸誡를 내리는 것으로, 세조의 『訓辭』와 영조

11) 胎封圖 3점은 「莊祖胎封山圖」「純祖胎封山圖」「憲宗大王胎室石物加封圖簇子」이다. 이에 대해서는 윤진영, 「장서각 소장의 胎封圖 3점」 『藏書閣』 13, 2005, 133-141면을 참조.

의 『御製政訓』이 대표적이다. 教旨는 국왕이 신료에게 官爵, 諡號, 토지, 노비 등을 내리는 문서로 선조가 최홍원에게 내린 교지 25건을 모은 『王旨御帖』이 있고, 教書는 국왕이 내리는 훈유서 내지는 선포문으로 대한제국 시기에 내려진 『詔勅』과 『勅諭』 등이 있다.

功臣錄券은 조선시대에 28차례에 걸쳐 功臣 혹은 原從功臣에게 내려진 녹권을 말하며, 功臣謄錄은 공신 후손의 恩典을 확인하는 문서를 말하는데, 인조대 이후 역대 공신의 자손들을 소집하여 會盟祭를 거행한 3종의 『功臣會盟錄』이 대표적이다.

국왕의 명령인 傳敎와 이를 법령 형태로 다듬은 受敎는 법전의 조문을 보완하는 것인데, 수교를 정리한 『受敎謄錄』과 수교 모음집인 『受敎輯錄』이 있다. 綸音과 綸誥는 국왕이 臣民에게 내린 명령 문서인데, 영조에서 고종까지 45종 585부의 율음이 있다. 諭書는 국왕이 관찰사·병마사 등 군대 지휘관에게 보내는 비밀문서인데, 그중에는 1907년 고종이 양위하고 군대가 해산된 후 전국에서 무장 의병이 일어나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내린 17종의 유서가 있다.

② 신민의 진언

‘신민의 진언’은 국왕과 왕실의 정치를 보좌하는 신민의 진언에 관한 자료로 下意上達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신민의 진언은 다시 3가지로 구분되는데, 사헌부, 사간원, 경연과 같은 국가의 주요 관청에서 공식적으로 올리는 관청의 진언, 현직 관료나 지방 유생들이 개별적으로 올리는 신민의 개별 진언, 국왕의 求言에 호응하여 應旨 상소를 올리는 것이 그것이다. 『己亥服制奏議』는 1659년 趙大妃의 복제를 둘러싸고 올려진 신하들의 上奏文과 국왕의 批答을 정리한 책이다.

③ 국왕의 교육

‘국왕의 교육’은 經筵·書筵으로 대표되는 국왕과 왕세자 교육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국왕을 교육시키는 경연은 法講인 朝講·晝講·夕講과 召對, 夜對로 구성되는데, 법강에서는 주로 사서오경과 유학서를 강의하고 소대, 야대에서는 역사서를 강의하도록 규정되었다.

규장각에는 조선 국왕들이 학습한 과목을 정리한 책자, 경연에서의 토론을 정리한 각종 일기와 『筵說』이 있으며, 私撰書인 최한기의 『講官論』이 있다. 왕세자를 교육시키는 서연은 경연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서연에서의 토론을 정리한 『春坊隨錄』, 『書筵講義』, 『書筵講說』, 『筵說』 등이 있으며, 왕세자 교재로 편찬한 『書筵備覽』, 『哲命篇』이 있다.

④ 왕실의 의식

‘왕실의 의식’은 禮敎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궁중의식의 이념과 수행 절차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조선의 국가전례는 吉禮·嘉禮·賓禮·軍禮·凶禮 등 五禮로 구성되는데, 전체를 다룬 通禮書에는 『國朝五禮儀』, 『國朝五禮儀序例』, 『國朝五禮儀考異』, 『國朝續五禮儀』, 『國朝續五禮儀補』, 『春官通考』, 『國朝五禮通編』이 있다. 또한 혼례에 관한 『國婚定例』, 『吉禮要覽』, 『舟梁儀禮』, 『親迎儀』, 『冊封嘉禮實錄考出』, 賀禮에 관한 箋文과 致詞文이 있으며, 國葬과 관련한 『喪禮補編』, 『喪祭燭定禮』, 『國忌』, 『進香謄錄』이 있다.

사신의 접대에 관해서는 중국 사신의 접대에 관한 『義順館迎詔圖』, 『詔勅謄錄』, 『勅使謄錄』, 『勅使儀註謄錄』, 『賓禮總覽』, 일본 사신의 접대에 관한 『典客司別謄錄』, 『陳賀差倭謄錄』, 『典客司日記』 등이 있다.

이외에도 각종 進宴에 관한 謄錄과 笏記, 國王 및 王실 가족이 행차할 때의 行렬과 호위 상황, 王실 제사에 관한 자료가 다수 있다.

④ 王실의 정책 - 국방·문자·교화·인재선발

‘국방정책’은 국방정책의 지침이 되는 兵法書와 戰書를 말하는데, 『陣法』, 『兵將說』, 『兵學指南』, 『兵將圖說』, 『續兵將圖說』, 『武藝圖譜通志』, 『武藝圖譜通志諺解』 등이 있다.

‘문자 교화정책’은 문자, 음운, 아동 교육을 위한 교재를 말하는데, 『童蒙先習』, 『御定奎章全韻』, 『御定詩韻』, 『洪武正韻』, 『華東正音通釋韻考』 등이 있다.

‘인재선발 정책’은 과거를 통해 인재를 선발한 내용을 밝힌 자료들인데, 정조대의 賓興錄이 대부분이다.

3) 王실의 학문

國王 및 王실 가족이 직접 생산했거나 國王의 명에 의해 편찬된 자료 및 도서목록을 말한다. 이는 王실의 도서목록, 國王 명편 경서, 유학사상, 불교사상으로 구분된다.

① 王실의 도서목록

‘왕실의 도서목록’은 國王 및 王실 가족이 열람한 도서목록을 보여주는 자료로 『奎章總目』과 『內閣訪書錄』을 비롯하여, 궁궐 내의 書庫인 西庫, 奉謨堂, 書香閣, 集玉齋, 隆文樓, 春坊, 芸閣 등의 소장 도서에 관한 목록이 있다.

② 國王 명편 경서

‘國王 명편 경서’는 國王의 명에 의해 편찬된 경서로, 總經에 해당하는 『三經四書正文』, 『五經百編』을 비롯하여, 五經, 四書에 관한 자료가 있다. 여기에는 정조가 초계문신과 경서를 토론한 講義류 자료가 많으며, 『書傳人物類聚』, 『論孟人物類聚』와 같이 경서의 학습 편

의를 위해 특별히 편찬된 서적도 있다.

③ 유교사상

‘유교사상’은 성리학에 관한 자료로 그 시기가 강력한 왕권을 지향하던 영, 정조대에 집중되어 있다. 영조대에 편찬된 것으로는 『女四書』, 『여사서언해』, 『古鏡重磨方』, 『政經』, 『種德新編』, 『종덕신편언해』 등 9종이 있으며, 정조대에 편찬된 것으로는 『敦孝錄』, 『朱書百選』, 『周公書』, 『五倫行實圖』 등 6종이 있다.

④ 불교사상

‘불교사상’은 조선 왕실에서 편찬한 불교 관련 자료로 15세기에 편찬된 언해자료인 『般若心經諺解』, 『永嘉大師證道歌南明泉禪師繼頌』, 『佛說阿彌陀經諺解』를 비롯하여, 『月印釋譜』, 『御製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가 있다. 조선왕조는 강력한 억불정책을 폈기 때문에 왕실자료에 포함된 불교 자료는 많지 않다.

4) 왕실의 문예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직접 제작한 詩文, 書畫와 국왕의 명에 의해 편찬된 서적과 시문, 왕실 인물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詩歌를 말한다. 이는 국왕의 시문, 군신의 창화, 왕실의 서화, 왕실의 서간, 국왕 명편 시문, 왕실 선양 시가로 구분된다.

① 국왕의 시문

‘국왕의 시문’은 ‘御製’라고 표현되는데, 국왕이 治者로서 臣民에게 내린 글, 국왕이 祖宗과 臣僚를 기리는 글, 국가 의례를 거행할 때 지은 글, 국왕 개인의 일상적 생활과 정서를 기록한 글 등이 있다. 국왕의 문집으로는 인종, 영조, 장헌세자(장조), 정조, 고종의 문집과 여러 국왕들의 시문을 합하여 편집한 『列聖御製』와 『列聖御製補遺』가 있으며, 국왕이 지은 글 중에서 숙종, 영조, 정조가 지은 것이 많이 남아 있다.

② 군신의 창화

‘군신의 창화’는 국왕과 왕비의 즉위, 탄일, 능행, 종묘 제사, 사직 제사, 왕세자와 왕세손의 책봉, 대리청정, 耆老會, 과거 시험, 서적 편찬 등 국가적 경사가 있을 때 국왕이 연회를 베풀면서 신하들과 시문을 酬唱한 것을 말한다. 이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세조, 성종, 숙종대의 것이 각 1종, 영조대 19종, 정조대 36종, 철종대 2종이 있다.

③ 왕실의 서화

‘왕실의 서화’는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제작한 서화를 말한다. 고려시대의 것으로는 공민왕의 <天山大獵之圖>가 유일한데 후대에 모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국왕의 필적을 모은 『列聖御筆』은 6종이 있으며, 선조, 효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익종, 고종, 흥선대원군의 개인 필첩이 있다. 『御筆懸板帖』은 1885년(고종 22)에 고종이 쓴 궁궐의 현판 글씨를 모은 것이다.

④ 왕실의 서간

‘왕실의 서간’은 왕실 가족이 쓴 편지로 순원왕후, 익종, 흥선대원군의 편지가 있다. 국왕이 신하에게 내린 편지는 『열성어제』에 수록되었지만, 이를 별도로 모은 책은 없다.

⑤ 국왕 명편 시문

‘국왕 명편 시문’은 국왕의 명령을 받아 각급 관청에서 편찬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시문집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시문집으로는 『東文選』 2종, 『續東文選』, 『詞垣英華』, 『文苑黼黻』, 『文苑黼黻續編』, 『文苑大方』이 있으며, 중국의 시문집으로는 『杜律分韻』, 『陸律分韻』, 『杜陸千選』, 『雅誦』, 『唐宋八子百選』, 『朱書百選』, 『陸奏約選』, 『文史咀英』 등이 있다.

이외에도 왕명으로 간행된 개인 문집으로 월산대군, 김진규, 남유용, 김덕령, 임경업, 양성지, 차천로, 채제공, 정도전, 이순신, 박은, 조문명, 양대박 등의 문집이 있다.

⑥ 왕실 선양 시가

‘왕실 선양 시가’는 궁중 연회나 의식에서 국왕의 덕을 기리는 樂章, 歌詞, 致詞를 말한다. 『龍飛御天歌』, 『國朝樂章』, 『俗樂歌詞』, 『致詞』, 『익일악장』, 『春帖子』 등이 있다.

⑦ 기타

정조의 활쏘기 기록인 『御射古風帖』 3종과 『御射臺帖』, 채득기가 심양에서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을 모시며 주고받은 시문인 『君臣言志錄』, 이곤수와 이면승이 정조와 수창한 『零金』, 『感恩編』, 주정섭이 조선시대 함경도 일대에서 시행된 향약을 정리한 『鄉憲』이 있다.

5) 왕실의 역사서술

국왕 및 왕실가족에 관한 역사서로서, 이는 다시 正史의 편찬, 年代記의 편찬, 雜史의 편찬, 사서의 보관으로 구분된다.

① 정사의 편찬

‘정사의 편찬’은 국왕을 역사기록의 주체로 하여 국가가 공식적으로 편찬한 역사서로서 『東國史略』, 『三國史節要』,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國通鑑』이 있다. 『三國史記』는 1512년(중종 7) 경주에서 간행한 현존 최고본이며, 중국 사서로는 『史記』, 『前漢書』, 『漢書』, 『晉書』, 『皇明本紀』가 있다.

② 연대기의 편찬

‘연대기의 편찬’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것으로 『朝鮮王朝實錄』이 가장 대표적이다.

③ 잡사의 편찬

‘잡사의 편찬’은 정사와 연대기를 제외한 여러 체제를 포괄하는 것으로 紀事, 日記, 臚錄으로 구분된다. 紀事는 내용에 따라 다시 討逆 관련 자료, 왕대별 자료, 黨論 자료로 구분되고, 日記와 臚錄은 내용에 따라 국왕 호위, 동궁일기, 宗簿司·宗親府 관련 자료로 구분되기도 한다. 특히 동궁일기는 世子 및 世孫의 나이에 따라 輔養廳日記, 輔德廳日記, 講學廳日記, 講書院日記, 東宮日記로 구분되는데, 세자 및 세손의 일일 동정과 학습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④ 사서의 보관

‘사서의 보관’은 왕실의 역사서를 보관 관리하는 상황에 관한 자료로, 4대 史庫와 각종 書庫에 서적을 봉안하거나 曝曬할 때 작성한 585책의 形止案이 있다. 이는 대상 서적이거나 서고에 따라 實錄形止案, 璿源錄形止案, 都監儀軌形止案, 外奎章閣形止案, 敬奉閣形止案으로 구분되는데, 실록형지안과 선원록형지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5. 왕실자료의 특징

규장각에 소장된 왕실자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은 왕실자료의 전 분야를 망라하여 국왕 및 왕실가족의 활동 전반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정리사업에서는 왕실자료를 왕실의 연원, 왕실의 정치, 왕실의 학문, 왕실의 문예, 왕실의 역사서술 등 5개 범주로 구분하여 정리했는데, 여기에는 국왕 및 왕실가족의 공식 활동과 이를 통해 생산된 창작물은 물론이고, 궁중 내에서의 일상생활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왕실문화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규장각의 왕실자료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두 번째 특징은 왕실자료의 작성 시기가 숙종대 이후 영, 정조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규장각의 왕실자료가 18세기에 집중된 이유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먼저 실제로 이 시기에 생산된 자료가 많았다. 숙종, 영조, 정조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왕실의 계보와 선대 국왕들의 기록을 집중적으로 정리했으며, 정조가 규장각을 창설할 때에도 선왕인 영조의 기록을 정리하는 것을 그 첫째 임무로 꼽았다. 또한 18세기의 국왕들은 국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전례를 집중적으로 정비했는데, 이를 통해 왕실의 의식에 관한 자료들이 많이 제작되었다. 다음으로 규장각의 역사를 볼 때 자료 수집이 18세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왕실자료는 조선전기에도 많이 만들어졌지만 두 차례의 전란을 통해 많이 소실되었다. 규장각은 처음 숙종에 의해 왕실의 물품을 보관하는 건물로 만들어졌고, 정조는 이를 계승하면서 자신을 보좌할 친위 학자를 양성하고 개혁 정책을 수립하는 정치기구로 개편했다. 따라서 규장각에는 숙종, 영조, 정조대에 만들어진 자료가 집중적으로 소장되게 되었다.

세 번째 특징은 왕실자료에는 활자본, 목판본과 같은 인쇄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왕실자료는 국왕 및 왕실가족의 활동과 권위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작성된 경우가 많았으므로 활자 또는 목판으로 인쇄되어 지방에까지 보급되는 예가 많았다. 그런데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자료는 궁궐 안의 서고와 지방의 4대 史庫에 분산되었던 책들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자료가 複本으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奎章總目』 『凌虛關漫稿』 『弘齋全書』의 예에서 보듯, 활자본이나 목판본의 저본이 되는 필사본도 많이 남아있어, 이들 자료가 편찬되는 과정에서 수정된 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다.

네 번째 특징은 왕실의 의식을 보여주는 자료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조선시대는 法治보다는 禮治의 시대이고 禮樂을 중시한 시대였으므로, 체제 정비의 토대가 되는 법전의 편찬만큼이나 국가전례서와 樂書의 편찬이 중요했다. 기본 법전인 『經國大典』이 편찬됨과 동시에 『國朝五禮儀』와 『樂學軌範』이 편찬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규장각에는 『국조오례의』나 『춘관통고』와 같이 五禮 전체를 다룬 通禮書 이외에도 儀軌, 膳錄, 笏記, 箋文, 節目, 儀註, 儀節, 班次圖, 笏記 등의 자료가 많이 남아있어 국가전례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禮治를 이념형으로 하는 조선시대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6. 맺음말

지금까지 2002년 8월부터 2005년 7월까지 3년 동안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진행한 ‘왕실자료 정리사업’의 개요와 대상 자료, 왕실자료의 내용과 특징을 개괄적으로 소개했다. 이하

에서는 본 정리사업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을 밝히는 것으로 이 논문을 맺고자 한다.

첫 번째 문제점은 본 정리사업이 규장각에 소장된 왕실자료 전체를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업을 시작할 때 연구자들은 2,200종의 왕실자료를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는 본 정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 인원과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산출한 수치였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왕실자료는 3,400종 이상으로 늘어났고, 이마저도 내용이 동일하면 판본을 구분하지 않은 숫자이므로 실제 왕실자료의 종수는 4천종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부득이 우선적으로 정리할 대상 자료를 선별했고, 그 과정에서 2,121종 15,486책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¹²⁾ 본 정리사업에서 제외된 자료의 내역은 <표 3>과 같은데, 이들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후속 사업을 기대한다.

<표 3> '왕실자료 정리사업' 에서 제외된 자료

장 제목	책수(종수)	절 제목	책수(종수)
왕실의 정치	3,274(674)	왕실의 의식	2,800(574)
		정책(재판)	53(5)
		정책(궁내부)	421(95)
왕실의 역사서술	8,759(316)	연대기의 편찬 사서의 보관	7,892(92) 867(224)
왕실의 재정	3,453(1,131)	왕실의 토지	632(612)
		왕실의 토지수입	1,639(367)
		왕실의 재정	1,182(152)
계		15,486(2,121)	

두 번째 문제점은 규장각의 왕실자료가 18세기에 집중된 것은 특징인 동시에 한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규장각의 자료는 왕실도서관을 계승한 자료인데, 16, 17세기 두 차례의 전란으로 인해 궁궐이 불탔기 때문에 그 이전의 자료는 소실된 것이 많다. 의례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이는 조선전기부터 만들어졌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은 1600년에 제작된 의례가 가장 최초의 것으로 불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있다. 실제로 규장각에 소장된 전체 자료 중에서 조선전기의 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으며, 조선전기의 자료는 개인 소장가나 지방의 古家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은 실정이다. 또한 규장각의 왕실자료가 주로 18세기 이후의 자료라고는 하지만, 영조, 고종, 순종대의 자료는 장서각에도 많이 소장되어 있다. 장서각 자료에는 특히 영조, 고종, 순종대에 작성된 필사본 유일본이 많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본 정리사업에서 제외된 왕실자료 2,121종 15,486책에는 별도 사업으로 진행한 儀軌 546종 2700책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 문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과 국립 고궁박물관(구 궁중유물전시관)¹³⁾의 자료를 보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왕실자료는 각 자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하나의 행사나 목적을 위해 여러 자료가 동시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테면 선왕을 追崇하는 조치가 있을 때에는 종묘에 올려질 寶와 冊이 제작되고, 冊文은 필사본이나 탁본이 만들어지며, 그 행사를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의궤가 작성된다. 또한 이때의 책문을 국왕이 직접 지었으면 御製, 직접 썼으면 御筆이 남게 된다.¹⁴⁾ 결국 이 행사를 통해 왕실 자료는 보, 책, 책문, 의궤, 어제, 어필 등의 형태로 남게 되므로, 이를 소장하고 있는 규장각, 장서각, 고궁박물관의 자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규장각의 ‘왕실자료 정리사업’은 왕실자료라는 범주를 별도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료를 선별하여 정리한 최초의 사업이다. 처음 시도된 사업이니 만큼 왕실자료의 범주를 정하고 이를 다시 세분하는 단계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기존의 四部 분류법에 익숙한 연구자들로서는 왕실자료의 분류가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이다. 본 정리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왕실자료의 분류를 수정했으며, 이제 그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처음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완성품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학계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자부하며, 향후 연구를 통해 보다 완성된 분류 체계가 갖추어지기를 기대한다.

왕실자료는 규장각이 소장한 자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구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왕실자료는 국왕 및 왕실가족의 일상사와 조선시대의 국정 운영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본 정리사업은 이에 관한 기본 정보를 연구자에게 최대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앞으로 왕실자료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 본 사업의 결과물이 기초 자료로 활용되게 된다면, 필자는 본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큰 보람을 느낄 것이다.

13) 국립 고궁박물관은 2005년 8월 15일 경복궁 안 옛 국립중앙박물관 자리에서 개관되었다. 고궁박물관은 1992년 덕수궁 석조전 건물에서 출범한 궁중유물전시관의 소장품과 종묘에 있던 祭器類, 4대 궁궐 등에 분산되었던 문화유산을 합하여 총 4만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게 되었다.

14) 김문식, 앞 논문, 2003, 46면.

〈부표 1〉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의 분류(5개 범주, 24개 세목)

1. 王室의 淵源
 - 1) 왕실의 族譜
 - 2) 왕실의 傳記
 - 3) 왕실의 遺蹟

2. 王室의 政治
 - 1) 국왕의 命令
 - 2) 신민의 進言
 - 3) 국왕의 敎育
 - 4) 왕실의 儀式
 - 5) 왕실의 政策：國防
 - 6) 왕실의 政策：文字·敎化
 - 7) 왕실의 政策：人才選拔

3. 王室의 學問
 - 1) 王室圖書目錄
 - 2) 經書
 - 3) 유교사상
 - 4) 불교사상

4. 王室의 文藝
 - 1) 국왕의 詩文
 - 2) 君臣의 唱和
 - 3) 왕실의 書畫
 - 4) 왕실의 書簡
 - 5) 국왕 命編 詩文
 - 6) 왕실 宣揚 詩歌
 - 7) 기타

5. 王室의 歷史敍述
 - 1) 正史의 편찬
 - 2) 年代記의 편찬
 - 3) 雜史의 편찬

〈부표 2〉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의 주제별 해설 목록

1. 『璿源系譜記略』 改刊의 양상
2. 조선시대 왕실의 족보 — 『璿源續譜』
3. 『列聖誌狀通紀』에 나타난 王道政治 思想
4. 『宗親府謄錄』과 『宗簿寺謄錄』의 편찬과 의미
5. 정조대 端宗 사적의 정비와 『莊陵史補』의 편찬
6. 『國朝五禮儀』와 『續五禮儀』의 편찬과 의의
7. 『國朝喪禮補編』의 편찬과 의의
8. 왕실의 嘉禮·賀禮 절차와 의미
9. 列聖의 冊封文과 冊禮儀式
10. 왕실의 進宴儀禮
11. 왕실의 迎接儀禮
12. 왕실의 行次儀式
13. 국왕 追崇 관련 서적의 편찬 추이와 의미
14. 왕실에 대한 追崇과 追尊 — 廟號·諡號를 중심으로
15. 조선시대 定宗의 ‘廟號追上論’
16. 왕실에 대한 尊崇과 追尊 — 尊號 의식을 중심으로
17. 祔廟의 절차와 의미
18. 왕실의 祭祀儀式
19. 조선시대 魂殿의 운영과 魂殿日記
20. 조선시대 功臣 錄勳의 내용과 의미
21. 受教·受教輯錄류의 내용과 法制史的 의미
22. 正祖 연간 綸音의 반포와 의미
23. 賓興錄의 간행과 정조대의 인재 선발
24. 勢道政治 시기 臺諫의 활동과 성격
25. 조선 왕실의 經學 — 『詩經』
26. 조선 왕실의 經學 — 『易經』
27. 『列聖御製』의 편찬과 국왕 시문의 특징
28. 東宮日記類의 편찬 추이와 의미
29. 국왕 비서기관 관련 日記類의 고찰
30. 왕실 호위조직의 변화와 의미
31. 영조대 國王義理明辯書의 편찬과 의미
32. 정조대 國王義理明辯書의 편찬과 의미
33. 규장각 소장 冊版의 현황과 가치